

남도 한옥의 재발견

넓고 불편한 과거 유산에서 한국형 문화 예술공간으로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계기로 '남도 한옥'을 재발견하고 세계화하기 위한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과거의 유산으로만 여겨졌던 광주 이장우가옥, 담양 소쇄원, 장흥 향교 등 남도의 아름다운 한옥들이 세계 유명 예술가들로부터 '절제된 자연미를 갖춘 아름다운 공간'으로서 재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한옥의 건축적 가치 재발견=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기아자동차 디자인총괄 부사장)와 국내외 건축가들은 담양 소쇄원의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터뜨렸다. 이들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소쇄원의 절제된 자연미와 공간 활용을 재해석한 작품을 주제로 한 '주' 색선에 선보이고 있다.

피터 슈라이어는 "소쇄원은 단단하고 연약한 것, 유동적이고 정돈된 것, 정확한 것과 유연적인 것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쇄원은 관계이다"라는 작품을 통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적 소재를 최대한 활용해 조화를 이룬 소쇄원의 공간 배치를 형상화했다.

또 이라크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도 소쇄원의 넉넉한

공간 연출을 '틈을 통해 드러나는 공간'이란 작품으로 표현했다. 이들은 한옥은 불편하고, 낡고, 허름하다는 편견을 깨고 미래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남도 한옥에서 찾고 있다.

▲한옥의 한적함, 새로운 문화 공간=이번 디자인비엔날레를 통



담양 소쇄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세계 유명 예술가들

절제된 자연미 감탄... 디자인 작품 형상화

가야금·아쟁 등 국악 공연장으로도 각광

해 국악의 참맛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남도 한옥을 찾고 있다. 김영일 큐레이터가 선보이는 '소리' 색선의 '한옥에서 국악 듣기' 프로그램은 한옥을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오는 19일 오후 8시 '어울림'전이 열리는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이장우가옥에서는 백인영씨가 '유대봉류' 가야금을 연주하고, 전인삼

씨가 '박봉술제 춘향가'를 들려준다.

또 오는 10월10일 오후 4시에는 장흥향교에서 성애순씨가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하고, 같은 달 24일 오후 4시에는 해남 녹우당에서 김무길씨가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를 연주한다. 오는 11월1일 오후 4시에는 다시 이장우가옥에서 서영호씨가 '서용석류' 아쟁 산조를 연주한다.

이들 연주는 SACD (super audio compact disc)로 녹음돼 오는 2010년 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음반 박람회인 'MIDEM'에 출품된다. 남도 한옥이 세계적인 음악 축제를 위한 뛰어난 연주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또 이장우가옥은 후손과 전시관계자들이 이번 디자인비엔날레가 끝난 뒤 정기적으로 국악 공연을 열어 광주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다.

김영일 큐레이터는 "서양음악은 밀폐된 공간에서 연주되지만 국악기는 한옥이라는 열린 공간에 어울린다"면서 "찾는 이 없던 남도한옥은 산세 소리와 빗소리 등과 어우러진 훌륭한 국악 공연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를 디자인 축제로 물들일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18일 개막해 주전시장이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 관람객들이 물려들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더할 나위 없는' 48일

디자인·삶·산업의 조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디자인과 삶, 산업의 조화를 추구하는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18일 개막, 48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국내외 미술, 디자인계 인사,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주제전 '집'에 참여한 피터 슈라이어 기아자동차 디자인총괄 부사장과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대 총장, 정국현 삼성전자 고문,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배순훈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개막식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개그만 김용만씨와 KBS 인기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 출연자인 에나벨의 공동사회로 진행됐다.

크레인을 이용해 커다란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퍼포먼스가 열리며 전통춤 선비춤 공연이 함께 펼쳐져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축하공연에 이어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인 박광태 광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광주는 문화와 전통에 스며 있는 훌륭한 특색을 찾아내 현대적인 감각으로 발전시키고 디자인에 반영하고 있다"며 "새로운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공식 행사에 이어 50명의 내빈은 테이프 커팅 대신, 직접 사인한 50개의 깃발을 전시장 입구에 꽂아 개막을 알렸다.

개막식에 이어 이날 오후 7시30분 비엔날레 전시관 앞마당에서는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대 총장이 대분을 쓰고 이상우씨가 연출한 연극 '변' 공연이 열렸다.

3회째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는 11월4일까지 48개국에서 500여명의 디자이너와 376개 기업이 참가해 1천951점의 현대 디자인을 선보인다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세주택 많이 지어 짐걱정 없게"

이명박 대통령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전세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전세금 정도로, 월세금 정도로 짐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주최로 열린 새마을박람회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

해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들이 '전세금 수준'의 자금만 확보하면 평생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같은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成年

20→19세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8일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조속현상을 반영하고 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만 19세로 변경된 점 등을 반영해 민법상 성년의 연령도 만 19세로 낮췄다.

또 현행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심신상실·미약자에 한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 등으로 전환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이나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 한정후견제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특정후견제는 상속 등 특정한 사무나 일정한 기간에 한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교수와 변호사 등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 1차로 116개 조문에 이르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